

“‘권지용’ USB 앨범, 무엇이 문제죠?”

지드래곤, USB 발매 논란에 입장 전

최근 솔로 앨범 '권지용'으로 국내외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한류그룹 '빅뱅' 리더인 지드래곤(29·권지용)이 오프라인에 발매된 '권지용' USB에 대한 음반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당황스러워했다. 지드래곤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글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어떠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한 아티스트의 작업물이 그저 '음반이다/아니다'로 달랑 나눠지면 끝인가?"라고 최근 자신의 USB 발매를 두고 벌어진 갑론을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지드래곤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겨우 단 몇 곡을 세상에 선보인다"며 "비닐에 쌓인 새 앨범이 손에 잡히면 그 기분은 매번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괄호 안에 그간 상용화된 음악 기록 저장 매체인 LP, 테이프, CD, USB 등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포인트가 다르며 "정작 제일 중요한 걸을 포장하고 있는 디지털적 요소를 재미까지 더한 그 형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곳에 그 누가 어디 서 틀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음악 내 목소리가 녹음된 바로 노래가 제일 중요

하다"고 했다.

지드래곤은 "당신의 귀를 통해 눈을 통해 손을 통해 입을 통해 오랜 시간 세월이 지나도 가슴속에 변치 않고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저 짧은 노래지만 당신의 인생의 한 페이지에 같이 수록 될, 좋은 멜로디와 좋은 가사가 전부인, 다른건 중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음원·음반 집계 사이트인 가온 차트를 후원하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음콘협)가 USB로 제작된 '권지용'을 물리적인 음반으로 간주하기 힘들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음콘협이 이런 해석을 내린 까닭은 처음 구입한 USB 안에 고정된 음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USB를 컴퓨터에 꽂아 실행시키면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 이동해 일련번호를 입력한 뒤 음원과 뮤직비디오 등을 내려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또 다른 음반 집계 사이트인 한터 차트는 '권지용' USB를 음반 판매량 집계



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방송사의 음악 순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서 일부 뮤지션들이 카드 등을 사용해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음원 등을 내려 받는 '키노 앨범' 등을 발매했다.

하지만 판매량은 물론 대중음악계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지드래곤의 USB 앨범으로 인해 가요계에 음원 저장 매체의 성격을 둘러싼 토론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당겨졌다.

가요계 관계자는 "노래를 유통하고 소비하는 형식이 다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드래곤의 USB는 더 큰 화두를 던졌다"며 "최근 한국 유일의 LP풍정이 다시 거동되는 등 LP로 통칭되는 바이닐의 인기가 높아지는 시점이기도 한데, 음반 형태를 둘러싼 건강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류그룹 '빅뱅' 리더인 지드래곤(29·권지용)이 오프라인에 발매된 '권지용' USB에 대한 음반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당황스러워했다.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과 계약 해지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결국 국적을 떠난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5일 오후 2시 과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 기술교육실에서 2017 제5차 KFA 기술위원회를 열고 슈틸리케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9월24일 처음 한국땅을 밟은 슈틸리케 감독은 부임 2년3개월 만에 지휘봉을 반납하게 됐다.



/김민근 기자

중 시진핑 주석, FIFA에 월드컵 유치 의사 표명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제축구연맹(FIFA)에 월드컵 유치 희망 의사를 전달했다. FIFA는 1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아니 인판티노 회장이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1시간 가량 면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인판티노 회장에게 축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중국의 축구 발전 비전 등에 대해 역설했다.

시 주석은 "모든 중국인들의 꿈이라면 남자 성인 월드컵을 반드시 중국에서 치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국제적인 시기와 개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판티노 회장은 시 주석과의 면담을 마친 뒤 "우리는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 오늘날 축구의 미래를 위해 중국과 FIFA의 긴밀한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고 말했다.

평창 조직위, 국회 유엔 포럼과 양해각서 체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럼이 평창올림픽 성공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조직위는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국회 유엔 SDGs 포럼 권성동(국회 법사위 위원장)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의원과관에서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와 지속가능한 올림픽 홍보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엔 SDGs는 인류 보편적 문제와 지구환경 개선을 위해 유엔 주도로 193개국이 진행하는 인류 최대의 국제사회 공동 협약 프로젝트다. 이날 협약식에서 유엔 SDGs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과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위한 국제협력"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민근기자

메이웨더 vs UFC챔피언 맥그리거 8월 대격돌

'무패의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0·미국)와 '종합격투기 최고의 스타' 코너 맥그리거(28·아일랜드)가 세기의 대결을 펼친다.

ESPN, 폭스스포츠 등 해외 매체들은 메이웨더와 맥그리거가 오는 8월28일(한국시간) 맞붙는다고 15일 보도했다.

진실의 복서와 현 UFC 챔피언의 복싱 대결이 성사된 것이다. 지난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 복싱 페더급 동메달을 획득한 메이웨더는 프로로 전향해 5체급을 석권한 진실의 복서이다. 아웃복서지만 극강의 복싱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다. 20년 동안 49전 49승을 기록했다.

맥그리거는 2015년 12월 UFC 페더급 챔피언과 지난해 11월 UFC 라이트급을 석권한 바 있다. 화려한 경기 스타일의 타격가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다. 전적은 21승 3패를 기록했다.

/김민근기자

에이핑크 살해협박 전화... 경찰, 소속사로 출동

소속사 플랜에이, "멤버들 일정 당분간 사설 경호원 배치 협박범 신원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협의 아끼지 않을 것"

걸그룹 '에이핑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와 경찰이 소속사로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5일 에이핑크 소속사 플랜에이 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미상자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로 전화를 걸어 에이핑크 멤버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소속사가 나를 고소해 화가 난 상태라며 에이핑크 멤버들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 소속사로 오후 9시까지 가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40분께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플랜에이 사무실로 출동했다.

이날 오후 8시30분께 사복 차림의 강남경찰서 강력계 형사 8명이 플랜에이 건물 주변에 배치돼 체포 등을 준비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강북에 위치한 멤버들의 연습실에도 관한 지근거리 출동 후 시모를 사고를 대비했다.

플랜에이는 "오후 10시까지 협박범이 나타나지 않았고, 형사들은 이후 소속사

직원 등을 상대로 그간의 정황에 대해 관련 추가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당시에 연습을 중단하고 있던 멤버들 역시 오후 10시께 숙소로 복귀했으며 플랜에이는 즉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소속사 인근에 소속사 직원 등을 상시 대기시켰다.

플랜에이 관계자는 "강남 경찰서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며, 소속사는 다양한 협조와 함께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당사는 협박 용의자의 신원이 빠른 시일 내에 파악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8일 새 미니앨범 '핑크 업(Pink UP)' 발매를 앞둔 에이핑크 멤버들은 15일 공식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플랜에이는 "가급적 대외 외출을 자제한 가운데, 피치 못할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동선 및 개별 멤버마다 매니저가 동행해 안전을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사설 경호업체 직원을 당분간 고용, 멤버 전원의 경호를 맡겼다.

플랜에이 관계자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



걸그룹 '에이핑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와 경찰이 소속사로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8일 새 미니앨범 '핑크 업(Pink UP)' 발매를 앞둔 에이핑크 멤버들은 15일 공식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록 최선을 경주하고, 이와 동시에 멤버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경호를 이어갈 것을 팬들에게 약속드린다"며 "더불어 조속히 협박범의 신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협의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향후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이뤄지는 악플과 각종 위협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법률적 대응으로 사안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